

우상혁, 로마에서 올림픽 챔피언 커·탐베리와 ‘찐승부’

육상 다이아몬드리그 출전…세계실내선수권 등 올해 5연승 행진

올해 국제대회 5연승 행진을 벌인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올림픽 챔피언들과 맞대결한다.

2025 세계육상연맹 로마 다이아몬드리그는 현지 시간으로 6일에 열린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경기 시작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4시 11분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탈리아가 낳은 육상 스타 장마르코 탐베리가 이번엔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르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탐베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출전 여부를 팬이 정해달라”며 설문했다.

대부분의 팬이 ‘출전’에 표를 던졌고, 탐베리는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출전을 확정했다.

우상혁도 주목받는 선수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올해 세계실내선수권 챔피언이자, 지난해 로마 대회 우승자인 우상혁이 출전한 다”며 “2024 파리 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 2023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 주본 해리스

(미국), 올 시즌 기록 1위(2m34) 올레 도로슈크(우크라이나) 등 올해 9월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볼 수 있는 정상급 점퍼들이 대거 나온다”고 소개했다.

탐베리는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당시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과 탐베리는 공동 1위에 올랐다.

파리, 도쿄 올림픽 챔피언이 동시에 출전하면서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순위는 더 높아졌다.

최정상급 점퍼 사이에서도 우상혁은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올해 우상혁은 2월 9일 시즌 첫 출전 대회인 체코 실내대회에서 2m31로 우승했고, 같은 달 19일 슬로바키아 대회에서도 2m28로 정상에 올랐다.

3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벌어진 2025 세계실내선수권 역시 2m31로 우승하며 올해 3개 실내 국제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실외 경기 시작과 함께 5월 10일 앳그레비티첼린지(2m29) 우승 트로피를 들고, 29일 구미 아시아 선수권(2m29)에서 금맥을 켜ت.

난징 세계실내선수권과 앳그레비티첼린지에서

는 파리 올림픽 점프 커를 연파하기도 했다.

커는 우상혁이 불참한 라바트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m25로 우승했다.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이자, 라이벌인 우상혁과 커는 6월 7일 로마에서 재결한다.

탐베리가 출전을 결심하면서, 우승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우상혁은 2022년 5월 카타르 도하에서 다이아몬드리그 첫 우승을 차지했고, 2023년 9월에는 그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정상에 섰다.

지난해 8월 11일 파리 올림픽에서 7위(2m27)에 머물렀던 우상혁은 20일 후 로마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우승하며 상처를 치유했다.

올해 우상혁은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구미 아시아 선수권, 도쿄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세웠다.

두 가지 목표를 이룬 우상혁은 9월 도쿄 세계선수권 우승을 향해 댕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크다.

우상혁은 “앞으로 나설 대회는 도쿄 세계선수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린다.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목표도 우승”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넘어 정상에 오른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대표팀 강소희 “VNL 경기 투지있게 싸우겠다”

1주 차 독일·이탈리아 등과 대결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5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독일과 첫 경기를 앞둔 가운데 대표팀 주장 강소희(한국도로공사·사진)가 VNL 잔류 의지를 밝혔다.

강소희는 4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VNL 1주 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소희는 강등제 도입 첫해 각오를 묻는 말에 “VNL은 한국 팀에 소중한 기회”라면서 “절대로 강등되지 않도록 투지 있게 싸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VNL 준비 기간에 대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팀워크도 생겨 기대해도 된다”고 대답했다.

강소희는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경기와 경쟁 팀에 대해선 “매 경기 설레고 기대된다”면서 “(출전한) 모든 팀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독일 대표팀의 주축인 미들블로커 카멜라 바이첼을 비롯해 1주 차에서 맞붙는 이탈리아, 체코, 미국의 선수 1명과 주최국 브



라질 대표팀의 감독과 선수가 참석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5일 독일전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체코, 미국과 차례로 VNL 1주 차 경기를 벌인다.

18개의 참가국 중 최하위는 내년 VNL 무대에서 뛸 수 없기 때문에 강등되지 않으려면 ‘2승 이상’을 거둬야 한다.

2022년과 2023년 VNL에서 12전 전패를 했던 한국은 지난해 VNL에서 태국을 잡고 30연패 사슬을 끊었고 프랑스도 꺾고 2승을 수확해 16개국 가운데 15위로 최하위를 면했다.

VNL 1주 차에서 맞붙는 네 팀은 세계 정상급의 강팀들이다.

FIVB 세계랭킹은 이탈리아가 1위로 가장 높고, 미국 3위, 독일 12위, 체코 15위에 이어 한국은 35위로 가장 낮다.

1주 차 첫 상대인 독일은 튀르키예 명문구단 엑자사비사 사령탑인 줄리오 브레글리 감독이 지휘하며, 미들블로커 바이첼과 아웃사이드 히터 리니 알스마이여, 리베로 안나 포가니 등이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작년 파리 올림픽을 제패한 세계 최강이고, 미국도 이탈리아와 올림픽 결승 대결을 벌였던 강팀이다.

그나마 체코가 모랄레스 감독이 1주 차 경기에서 승리를 노려보겠다고 밝힌 팀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우수팀, 전국대회서 금빛 활약

윤웅진·제영우 금 등 5개 메달 획득

전남도청 우수팀이 전국 우수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얻어냈다.

지난 2일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끝난 ‘제8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 산타 60kg급 경기에서 윤웅진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4강에서 이재준(포항시청)을 2-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윤웅진은 변성지(대구시청)를 상대로 2-0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제대하고 올해 전남도청에 입단한 제영우는 투로 남권 부문에서 9.44점을 받으며 충북개발공사 고영우(9.34점)와 김진수(9.25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태극권 전능 국가대표 장민규도 태극권(9.58점)에서 은메달, 태극검(9.57점)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팀 막내 김강현은 75kg급 산타 부문 4강전에서



전남도청 윤웅진(오른쪽)이 지난 2일 김천에서 끝난 ‘제8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포항시청 김민수에 0-2로 져 동메달을 기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반상의 전설들 자존심 대결

월드바둑챔피언십 개막

한 시대 세계 바둑계를 호령했던 반상의 전설들이 다시 한번 수읽기 대결에 나선다.

시니어 프로기사들의 격전장인 제6회 월드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까지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 & 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펼쳐진다.

만 45세(1980년 이전 출생자) 이상 프로기사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각국에서 16명이 출전한다.

한국은 디펜딩 챔피언 유창혁 9단을 비롯해 랭킹 시드를 받은 최명훈·목진석 9단, 국내 선발전을 통과한 이창호·안조영 9단, 후원사 초청을 받은 조준현·이상훈 9단 등 7명이 출격한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3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15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60초 초읽기 3회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박소형,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선전

여자 예뻐 개인전 2위

전남도청 펜싱팀 박소형이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메달 수확을 이어가며 태극마크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지난 2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펜싱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박소형(전남도청)이 여자일반부 에페 개인전 2위를 차지했다.

박소형은 최은숙(광주서구청)과의 8강전에서 11-10으로 승리하며 4강에 올랐고 이혜인(울산시청)을 13-12로 물리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

서 만난 송세라(부산시청)를 상대로 12-15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펜싱 국가대표 선발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비롯해 종목별 오픈대회(1월), 대통령배남녀펜싱 선수권대회(8월), 김창환배 전국남녀선수권 대회(9월) 등 4개 대회 개인전 경기 성적과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순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소형은 지난 1월 열린 ‘2025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6월 07일(토) 16:30, 17:30 / 남구 푸른길 공원

-06월 14일(토) 16:30, 17:30 / 양산초 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의 향해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6-5(목)~2025-7-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